

박영재 교수의 침단 과학과 불교



하서서 옛날과 같은 활기를 찾아보기 힘든 것 같다. 필자의 견해로는 지금이, 만공 스님

심소스인데, 아무리 침단과학이 발달한다하더라도 입실지도는 조실 스님이 강건한 체력과 선체험을 바탕으로 직접 해야만 한다. 몇 해 전 어느 문중의 젊은 수좌 스님을 만날 기회가 있어 문중의 조실 스님께 입실 지도는 받고 계신지 물었더니 일년에 한 번 정도 부축 받고 대중에 모습을 보이시기 때문에 입실 지도를 받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직접 들은 적이 있다. 물론 이

역량있는 젊은 후학들에 일 넘겨야 자비심바탕 복지 질적개선 서둘러

역이 다하기 전에 자연스럽게 역량 있는 후학에게 자리를 넘기면 공석이 되는 일없이 총림이나 선원이 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잘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방장'에 해당하는 '관장(해당 종파의 최고 어른)'이란 직제가 있는데 종신직이 아니고 임기제이기 때문에 역량 있는 후학에게 자연스럽게 자리를 넘기도록 되어 있다. 사실 선의 세계에서 입실 지도는 가장 중요한 핵

어른들이 공식적으로 은퇴한다고 해도, 아직도 활발한 활동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한국 가톨릭의 전수장이었던 김수환 추기경처럼, 하사할 일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불교계 외부의 문제로 무기력한 정부 정책과는 별개로 노령화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의 고통에 보다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어떻게 보면 타종교들과 선의 경쟁을 벌이고 있는

분야이다. 솔직히 가톨릭과 개신교는 이 분야에서 특히 불교보다 많이 앞서 가고 있다. 그러나 낙심할 필요는 없다. 자비 정신을 바탕으로 타종교계의 좋은 점은 배우면서 불교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면, 양적인 실적 위주보다 깊이 있는 질적인 개선 여지는 아직 많이 남아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젊어진 불교계의 어른들이 관심을 가지고 직접 발 벗고 나서신다면 더욱 가속도를 가지고 일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필자가 35세(1990년)부터 지도법사로 있는 선도회(禪道會)의 정래 핵심 계획을 하나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바람직한 청소년 육성사업과 노인 복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작은 계획이다. 현재 선도회의 대부분 법사들이 정년퇴임할 시기는 15~20년 후이다. 이때를 맞추어 수도권 근처에 다목적 선도회 선원을 건립하는 것이다. 첫 번째는 선도회 법사들이 교대로 상주하며 365일 입실지도가 가능한 선원의 건립이다. 두 번째는 방학을 이용해 정기적인 청소년 수련회를 개최하여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 정착에 일조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다양한 전문직에 종사하다 퇴직한 선도회 회원들이 단지는 날만을 기다리며 죽음을 평온하게 맞이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도반들과 함께 머물며, 지속적인 참선 수행과 전문직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일이다.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ypark@ccs.sogang.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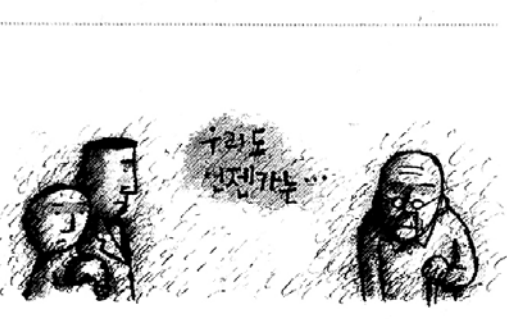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바람직한 노령화사회

침단과학의 발달로 의학분야도 침단의료장비를 갖추게 되면서 인간의 수명이 점차 연장, 지구촌은 점점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도 65세 이상의 노년층이 전체 인구의 7.3%로서 지난 5년 사이에 27.7% 늘어난 반면, 생산연령(15~64세)인 청장년층의 증가율은 13%에서 4.1%로 줄어듦에 급속하게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노년층의 전문적인 노동력을 대사회봉사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제도나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는 복지 제도는 전무한 상태이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노령수당 등과 같은 노후생활 안정대책이나, 노인 건강 관리대책, 그리고 노인을 위한 무료시설,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과 같은 사업과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

인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불교계에서도 노령화 사회에 발맞추어 두 가지 노력을 경주할 시기가 생각된다. 첫 번째는 불교계 내부의 문제로 불교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층의 노령화 문제이다. 태고보우(1301~1382) 선사는 19세에 만법귀일(萬法歸一) 화두를 타파했으며 몇 차례의 오도(悟道) 후, 46세에 석육정공 선사의 법을 이었다. 그리고 근세사를 살펴보면 경허성우(1846~1912) 선사는 31세에 오도 후 37세부터 59세까지 전법을 하다 59세 때 강계 지방으로 은거하였으며, 곧바로 그 뒤를 이어 34세의 만공월면(1871~1946) 선사가 선공(禪風)을 휘날렸다. 그밖에 23세에 오도하신 용성선종(1864~1940) 선사를 포함해 대부분의 선사들이 30대와 40대에 대활약을 펼치며 한국 선종을 이끌어 왔으나, 오늘날 한국의 현실을 들여다 보면 총림의 방장 스님들과 선원의 조실 스님들이 대부분 연로



임제록 통한 선 공부 ㉔

있는자리 그대로 진실하다

가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경계는 자신에게서 비롯되고 자신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도,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경계만을 쫓아닌다. 중생이 거꾸로 뒤집어져 있다는 말이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여긴다. 또한 우리는 음악이 악기에서 나오고 음악의 화음 속에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여긴다. 이것이 보통사람들의 의심 없는 사고방식이다. 그러나 조금만 살펴보면 이런 생각은 그야말로 근본과 말단을 뒤집은 잘못된 생각

'나' 자신인 것은 아니다.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찾는다면 그것은 바로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볼 줄 아는 것이 바로 '나'요 들을 줄 아는 것이 바로 '나'이다. 볼 줄 아는 여기에서 '나'가 살아

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나'요, 생각이 '나'가 아니라 생각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나'요, 욕망이 '나'가 아니라 욕망을 발생시키는 것이 바로 '나'요, 의식이 '나'가 아니라 의식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참된 '나'이다.

'나' 아닌 육체나 느낌이나 생각이 나 욕망이나 의식은 모두 생겨나고 사라지는 변화를 무상하게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참된 '나'는 그러한 생멸 변화와 늘 함께 하면서도 생멸변화 없이 항상 그대로 바로 여기에 지금 '나'에게서 분리되지 않고 있다. 그럼 육체와 의식이 아무 활동도 하지 않는 깊은 잠 속에서 '나'는 어디에 있느냐고? 육체와 의식에는 활동이 있고 정지가 있지만, '나'에게는 활동과 정지가 구분되어 따로 있지 않다. 어떻게 그런가? 잘 살펴보자.

김태완 · 부산대 강사, 철학
■ 김태완 박사 선어록 강좌 안내
부산무심선사 매주 토요일 오후 2~5시, 수원 경기불교문화원 매달 1,3주 일요일 오후 1~4시 문의 011-9520-0054(이정화)

이렇게 들었다

육바라밀 실천 더욱 절실

부의 불평등 심화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부의 재분배를 맡아야 할 조세 정책마저 뒷걸음 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98년 외환위기 이후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내려지자 자산소득 부부합산제를 폐지하고 개인별 과세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고액 재산가들이 더 적게 세금을 낼 뿐 아니라 탈세의 길도 더욱 넓어지게 됐다.

또한 아파트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매기는 과세기준도 현실적인 아파트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격이 낮은 아파트에 대해 오히려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도 최근 확인되고 있다. 서민들은 이렇듯 우리 사회가 정말 90대 10 사회로 바뀌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게 됐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의 축적을 막을 수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부자는 영원히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영원히 가난하게 되는 사회 구조이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재물을 나누는 것은 단지 물건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공간에 인심이 난다는 말이다. 보다 살만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금 불교의 가르침인 육바라밀 실천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 재물을 모으되 법답게 하고 법답지 않은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이 모은 재물일지라도 사치하지 말고 남들에게 베풀되 법도를 잃지 않으면 살아서 행복하고 죽어서도 천상에 태어나게 된다. <잡아함경>

■ 양상을 하고 재물을 모으되 계량기를 속여서 팔거나 그것으로 인해 이득을 얻는다면 죄가 된다. <우바세계경>

■ 무리하게 구하지 않고, 분수를 알아 만족할 줄 알며, 남을 속이는 사된 직업으로 생활하지 않고 다만 법답게 재물을 구하여 법답지 않은 것은 따르지 않는 것을 바른 생활(正命)이라 한다. <사제경>

영어로 배우는 불교용어

불교의 명절 Buddhist Ceremonies

There are special ceremonies for other occasions. The five main Buddhist holidays are richly celebrated each year, according to the lunar calendar: the Buddha's Birthday(4th month 8th day), is the main event of the year, the Buddha's Leaving Home(2nd month 8th day), the Buddha's Passing(2nd month 15th day), Enlightenment Day(12th month 8th day), and 'All Spirit's Day' (7th month 15th day)

일반적인 예불 외에 특별한 의식이 치러지는 날이 있다. 음력으로 치러지는 불교의 오대 명절에는 매년 화려한 축제가 열린다. 음력 4월 8일은 부처님오신날로, 일년 중 최대의 행사이다. 출가제일은 음력 2월 8일이고, 성도제일은 음력 12월 8일, 열반제일은 음력 2월 15일이다. 우람분절은 음력 7월 15일이다.

Every two weeks, in the day the monks shave their heads and wash and mend their clothes, there is a ceremony and teaching delivered by a senior monk.

격주마다 스님들은 자신의 머리를 깎고 옷을 세탁하고 수선한다. 이날 격주 예불과 큰스님의 법문이 있다.

그대들이 법에 어긋나지 않기를 바란다. 모를지기 대장부여야 가능하지 힘 없이 따라 다녀서는 불가능하다. 예컨대 깨어진 그릇에는 맛있는 우유를 담을 수 없는 것과 같다. 큰 그릇이라야 남에게 속지 않고, 이르는 곳마다 주인공이 되고 선 자리가 모두 진실하게 된다. 다만 다가오는 것은 모두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니, 그대들이 한 생각이라도 의심한다면, 곧 마구나 마음으로부터 들어온다. 예컨대 보살이라 하더라도 의심할 때에는 생사의 마구나가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단지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그 뿐, 다시는 밖으로 구하지 말고 다가오는 것이 있으면 비추어 보라. 그대들이 다만 지금 작용하는 이것을 믿기만 하면 아무 일도 없다. 그대들의 한 생각 마음이 삼계를 낳고, 인연 따라 나누어져 육진경계(六塵境界)가 된다. 그대들이 지금 작용하는 곳에 무슨 모자람이 있는가?

다가오는것 있으면 비추어보라

예를 들어, 한 폭의 그림을 보고 한 소절의 음악을 듣는다고 하자. 그림과 음악의 존재와 의미가 어디에서 생겨나 어디에 살아 있는가? 우리는 그림이 액자 안에 붙여져 있는 화폭에 있고 그림 속에 그 의미가 담겨 있다고

임을 알 수가 있다. 어떤 그림이건 보는 눈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며, 어떤 음악이든 듣는 귀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하지만 보이는 색깔이 곧 '나' 자신인 것은 아니고 들리는 소리가 곧

있고 들을 줄 아는 여기에서 '나'가 살아 있다. 이처럼 '나'의 존재는 바로 지금 여기에 살아 작용하는 것이다. 육체가 '나'가 아니라 육체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나'요, 느낌이 '나'가 아니라 느낌이 살아 움직

육임래정비법혁신판

만세력이 필요없는 책

출생년월일시를 물을 필요 없는 책

찾아 온 시간, 전화 온 시간, 가서 만난 그 시간만으로 상대의 용건과 정황과 비밀한 사정을 미리 알아 먼저 말하고 그 방향을 판단해주는 비기서!

육임은 사람일을 밝히는 데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그래서 「五術之中帝王」이요, 「神示」라고도 합니다. 오행(五行)을 몰라도, 이 책 그 날치 한장만 배 놓고 그 시간만 보면 아래 내용을 미리 알고 먼저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여러사람이 차례대로 오거나 같은 시간에 여러사람이 한꺼번에 물려 오더라도 각기 다르게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전화 했는지
- 그 일이 잘 될것인지 안될 것인지
- 가정이 부유한지 빈한한지 지금 가정에서 무슨 고민, 어떤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 현재 사는 집이 길상(吉相)인지 흉상(凶相)인지 어디로 언제 이사해야 개운 될 것인지, 이사하면 언제 발복하게 될 것인지
- 상대가 이익 줄 사람인지 피해 줄 사람인지 무능인 인지
- 선한 사람인지 악성인 인지
- 이미 일이 벌어졌는지 벌어질 것인지 언제 벌어지게 될 것인지
- 옛날 일인지 최근사 인지
- 남녀불문하고, 어떤 색정사가 벌어져 있는지 아니면 언제 벌어질 것인지 - 男-女 관계인지 二男-女 관계인지
- 지금 무슨 귀신의 침해를 받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뱌 수 있는 것인지
- 현재 누구 산소의 말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인지
- 무슨 병인지 고칠수 있을지 없을지 언제 낫게 될 것인지
- 귀신 병인지 아닌지
- 수법(천도 시삭 곳 부축)을 행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언제 다시 판단해야 효과가 있을지
- 집(토지)이 팔릴지 안팔릴지 언제 팔리게 될지
- 시험에 붙을지 떨어질지
- 선거에 당선 될지 낙선 될지 - 승진이 될지 말지
- 돈이 구해질지 어려울지 언제 돈이 될지
- 임신한 아이가 남아인지 여아인지 몇날 몇시에 태어날지
- 경기 승부에 이길지 질지
- 결혼이 성사 될지 말지 언제 결혼하게 될 것인지
- 집나간 사람이 올지 말지 언제 오게 될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 도둑이 잡힐지 못잡힐지 잃은 물건을 찾을지 못찾을지
- 이 사람을 채용해야 좋을지 안좋은지
- 투자를 해서 이익 될지 손해 날지
- 이 가격이 높은지 낮은지 언제 사고 팔아야 할지
- 이 산소가 좋은지 나쁜지 후손은 어떻게 살아 갈것인지
- 무엇을 심어 어떤 결실이 얻어 질 수 있을 것인지
- 비가 올 것인지 개일지는 비 바람이 몇날 몇시부터 오고 불 것인지

동 등 인간사의 모든 길흉성부불 측시 말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둑놈들이 책을 대량 복사해서 팔러 다니고 있습니다. 저, 본 책을 개인이 판매하려 다니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본사와 부산지사서 전화주문으로만 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개인이 찾아와서 저와의 연고를 빌려가면서 이 책을 싸게 사라고 하는 것은 이 책을 조직적으로 대량복사 했거나 도용인쇄하여 팔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본이 아닙니다. 이렇게 책을 구입하셨거나, 개인이 찾아오거나 전화해서 책을 사라고 하는 경우를 겪으실때는 바로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후사하겠습니다. 인적사항과 인상착의를 함께 알려 주시면 본책을 한질 드리거나 현금1백 50만원을 즉시 사재하겠습니다. 저는 이책을 쓰기까지 저자식을 할땀과 7년을 산속에서 신을 썼습니다. 또, 막대한 제작비를 들여 이 책을 만들어 냈습니다. 지난 2년여에 걸쳐 이 책이 신봉하기로 검증이 되어 활인천역동역사 제위의 사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로써 저는 가히 7년의 산생활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람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파렴치한 자들이 저의 책 설명 강의를 몇번듣고 저로부터 육임을 배웠다고 자랑하면서 마치 저와의 인연이 깊은양 말하고 다니며 저가 쓴 책들을 대량 복사하여 조직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저의 이 고증을 심본 이해해 주시고 이 사람들을 바로 살게 하는데 협력하여 주십시오. 저의 직통전화는 02)996-3335입니다. 호사 배상

사주나, 기운이나, 주역이나, 학박이수나 어떤 명리법술도 인사의 구체적 길흉성부 판단에 있어서는 육임을 따를 수 없습니다. 사주 10년을 해도 이 책 그날치 한장의 시간별 내용을 밝혀 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도)를 믿는다. 구체적인 물음에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못하면 진정한 활인천역(活人天啓)이 못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문제와 당상의 의문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육임은, 마주치는 그 시간, 전화 온 그 시간으로 상대의 비밀한 사정과 정황을 즉시 알고 그 문제점과 고민을 바로 해소시켜 줄 수 있게 됩니다. 한두가지의 예를 들자면, 마주친 그 순간에 어떤 귀신의 침해를 받고 있는지, 누구의 산소에서 말을 부리고 있는지, 무슨 귀신병인지, 고칠 수 있을지 없을지 미리 알고 그것들을 해소시킬 방법을 제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입시 선거 구제 취직 승진 매매 입신 가솔 동등 인간사의 세부적인 것들까지 속 시원하게 밝혀 줄 수 있어 진정한 활인천역을 수행 할 수 있게 됩니다. 육임은 딱딱 부러지는 묘비(妙味)가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내심(內心)의 갈등이 없습니다. 이 책은 한마디로 염천행로(炎天行路)의 냉천수(冷泉)같은 것입니다.

■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W1,500,000(휴대용) ● 호사 육임강의록 W300,000
●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W1,300,000(좌정용) ● 호사 육임비디오 강의수강(총 28개) W900,0000

■ 강의신청 「육임학당호사숙」 02-998-8683
■ 각종 카드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 주문전화 02-993-8680 ▶ 부산지사 051-851-2349 ▶ 서울강남지사 02-2203-4805 ▶ 입금계좌 : 우리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卜問